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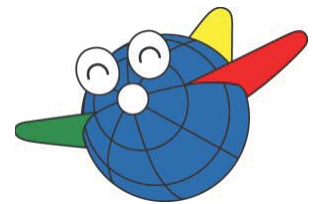
아시아의 활력을 적극 수용 강화 및 물류와 인적 교류 인프라의 활용

아시아로 향한 활력의 집적, 교류, 분배의 중심 거점으로



간사이국제공항의 국제 허브화

경영의 효율화를 비롯한 저가 항공회사의 거점 만들거나 일본 및 아시아의 화물을 유치하는 제도 창설 등을 통해 아시아와 일본 각지를 연결하는 “중계 거점”을 목표로 합니다.



간사이국제공항 캐릭터 간쿤



한신항의 국제 허브화

항만 경영의 민영화와 일원화를 추진하여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으로서 한신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부산항으로 빠져나간 화물을 되찾아옵니다.



물류의 기반이 되는 고속도로 기능의 강화

도시권 고속도로의 운영 일체화를 추진하여 요금 체계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그 수익을 도로 미정비 구간의 정비에 활용하여 물자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인적 교류의 기반이 되는 철도 접근성 및 네트워크 강화

간사이공항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나니와스지선, 간사이공항 리니어 등)나 오사카와 각지를 연결하는 리니어 중앙 신칸선 및 호쿠리쿠 신칸선의 정비를 위한 사업 수법 등을 구축합니다.



관민 연계에 의한 전략 인프라의 강화

인프라의 운영권을 민간에게 부여(컨세션 방식) 등, 민간의 지혜나 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정비 수법을 도입하여 공항이나 항만, 철도, 도로 등의 기능을 강화합니다.